

1976년 태국 탐마삿 학살, 홀로코스트와 청년 정치

이정우(고려대학교)

I. 연구 질문과 조사 방법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청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분쟁 이후, 주한 태국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12월 9일,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에게 캄보디아인이 밀집한 지역에는 방문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전라남도 영암에서는 캄보디아인 집단이 “어느 사람이냐”고 묻고 태국인들이 한국어로 “태국 사람”이라고 답하자 맥주병으로 폭행을 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양빈현, 2025/12/11).

일련의 사건만 관찰한다면 젊은 세대 역시 캄보디아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분쟁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SNS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는 달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는 전쟁을 반대하고 타이 민족주의를 포함한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해시태그가 수많은 글을 양산하고 있다. #NowarThaiCambodia, #สันติสุขชายแดน(#국경에서의평화) 등이 그것이다. 활동가 집단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보수주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캄보디아와의 평화, 캄보디아인을 위한 환대,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과 사뭇 다른 젊은 세대의 환대, 연대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태국에 깊게 존재하는 전통과는 다른 그들의 이데올로기란 존재하는가? Y세대와 Z세대는 누구이며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점이 그들의 외교 정책 선호와 연대의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본고는 Y세대와 Z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징이 외교 정책에 대한 선호에도 영향을 미쳐 캄보디아인에 대한 환대의 공간을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태국 사회 전통에 깊게 자리를 잡은 “왕실 중심의 민족주의”에 반대하고 1932년 시암 혁명을 이끈 카나랏사돈 세력의 민족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1973년의 학생운동, 1976년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과거 역시 성찰적으로 받아들여 미래를 위한 청년 정치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지점을 다루기 위하여 태국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만 19세에서 36세 사이의 민주주의, 인권 활동가를 포함한 총 26인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심층 면접 대상자에 대해 1회 이상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인터뷰 중의 일부인 2024년 10월 6일부터 동년 동월 12월 15일까지 수행된 11인에 관한 내용은 단행본(이정우, 2025a)의 내용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면담의 대상자는 생명윤리법에서 명시하는 취약한 인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접 대상자에게 묻지 않았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 면제 기준을 갖추었다.

면접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SNS상을 비롯해 반전, 평화, 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대상자를 만남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발화가 다른 청년 면접 대상자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가를 교차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청년 세대 집단의 발화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접촉이 필요하다. 접촉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스몰-칼라코, 2024: 53-54; 이정우, 2025b: 140). 복수의 기회를 통한 면담을 통해 청년 정치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코호트로서 Y세대와 Z세

대가 다른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들이 타이 민족주의에 대해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가, 1932년, 1976년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른 세대적 특성이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여 캄보디아와의 평화를 위한 확대의 공간을 생성하는가를 살펴본다.

II. 태국의 Y, Z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

세대가 주요한 주요한 사회적 균열로 부상한다는 설명은 세 가지의 흐름을 보인다. 첫째는 연령 차이에 따른 균열이다. 젊은 연령은 진보적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주장이다(Quintelier, 2007). 둘째, 코호트 효과이다. 같은 사건이어도 세대별로 반응이 다르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다른 반응에는 코호트별로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 집단적인 경험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선호를 보이고 따라서 세대의 차이가 균열로 등장한다는 설명이다(Inglehart, 1971; Abramson and Inglehart, 1987; Andolina, 2024; van der Brug and Kritzing, 2025). 셋째, 특정 시기의 특정한 효과가 일시적으로 세대 차이를 균열로 등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경쟁도가 높은 치열한 선거 이후에는 특정 세대가 더 정치적 관심을 보여 선거 참여율이 높아진다거나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세대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설명이다(Smets and Neundorf, 2014; Ford and Jennings, 2020).

태국에서 세대 요인이 균열로 나타난 현상은 연령 효과 혹은 특정 시기의 일시적 효과보다는 각 세대가 공유한 정치적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코호트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태국에서는 연령 효과보다는 세대별 기억과 정체성이 뚜렷하다. 1964년 이전 출생의 베이비붐 세대는 1976년 탐마삿 학살과 쿠데타를 공통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1973년 시위 역시 경험하였다. 당시 학생 세력은 왕정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향했다(Lertchoosakul, 2016).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에도 왕정주의자가 압도적 다수이며 왕당파/보수파를 지지한다. 베이비붐, X 대 Y, Z의 두 범주 사이의 선호 정당 간극이 존재한다. Y세대와 Z세대가 다른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 대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일시적 요인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 의한 아나콧마이당 해산, 라마 10세 국왕의 사생활을 둘러싼 문제, Y세대와 Z세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등이 있을 수 있다. 국왕의 기행으로 왕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왕실에 대한 비판은 1976년 이후 은닉대본의 형태로 꾸준히 존재하여왔다. 수면으로 드러났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젊은 세대가 특정 정당으로 지지하게 한 요인인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아나콧마이당의 해산은 젊은 세대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Y세대와 Z세대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예컨대, 까녹랏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은 대학생은 아나콧마이당의 해산으로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늘었지만, 고등학생 집단은 직접적인 왕실에 대한 회의를 그들의 참여 요인으로 꼽았다.

Y세대와 Z세대의 코호트는 균열을 경험하였지만, 이전의 세대와 같이 대규모 학살을 경험한 적이 없고 비교적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의 경험이 있으며 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정당이 성공적으로 의회에 진입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잉글하트(Inglehart, 1971)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오랜 기간을 통해 생성된 전혀 다른 배경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 이후, 오랜 평화를 경험하면서 후기물질주의의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도 1991년, 2010년 대규모 유혈 진압 이후, 2014년의 쿠데타를 시작으로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의

탄압은 있었으나 오랜 기간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틈이 생성된 것이다. Y, Z세대는 태국의 쿠데타 이후에도 군정 하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시기를 경험하였으며 학살은 관찰한 적이 없다. 이후, 총선을 통해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2019년 총선 이후, 2023년과 2026년 총선을 세 번 겪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성 시기를 보낸 Y,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더 급진적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표 1> 쿠데타, 총선 일시, 이후 당시 선거 및 시민사회 특징 요약

쿠데타 시기	직후 총선 일시	기간	학살 여부	자유로운 선거, 시민사회 여부
1933/06/20	1933/11/15	4개월 26일	아니오	정당정치 미발달, 체제 형성기
1947/11/08	1948/01/29	2개월 21일	아니오	정치 불안정, 시민사회 제한
1948/04/06	1952/02/26	3년 10개월	아니오	군부 중심 정치, 시민사회 제한
1951/11/29	1952/02/26	2개월 28일	아니오	군부 중심 정치, 시민사회 제한
1957/09/16	1957/12/15	2개월 29일	아니오	군 영향력 급상승
1958/10/20	1969/02/10	10년 3개월	아니오	폐쇄적(장기 군정/독재)
1971/11/17	1975/01/26	3년 2개월	아니오	헌정중단/군정
1976/10/06	1979/04/22	2년 6개월	예	공산주의 검열, 노조 탄압
1977/10/20	1979/04/22	1년 6개월	아니오	시민사회 제한적
1991/02/23	1992/03/22	1년 28일	예	군정 아래에서 선거, 이후 대규모 진압
2006/09/19	2007/12/23	1년 3개월	아니오	계엄/표현의 자유 제한
2014/05/22	2019/03/24	4년 10개월	아니오	2019년 총선 비교적 자유

정보 출처: (Farrelly, 2011) 및 (Baker and Pongpaichit, 2022).

<표 1>은 1932년 시암 혁명으로 절대 왕정이 붕괴된 이후, 쿠데타의 일시와 선거 시행일자, 쿠데타와 선거 사이의 기간, 학살 여부, 시민사회의 특징을 연대기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세대별 코호트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58년부터 1969년까지,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베이비붐세대 코호트가 경험한 것이다. 그들은 전자에서는 장기 군정, 선거 지연, 시민사회 공간의 폐쇄를 경험하였고, 후자에서는 자유선거/시민사회의 성장, 중국에는 학살을 통한 군부 쿠데타를 집단적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둘째, X세대는 1991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 군정과 선거는 경험하였으나 결국 대규모 유혈 진압으로 좌절을 겪은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Y세대와 Z세대는 2006년 이후, 군정과 대규모 학살의 부재, 선거, 의회 진입을 모두 겪은 세대이다.

이처럼 Y, Z세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비교적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선거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이전의 세대와 비교해 좀 더 자유롭고 진보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가를 서술하자면 바로 그들은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민족주

의를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불교의 덕왕 개념을 통해 완성하는 왕실의 수호이다. 타이 민족주의 역시 국왕 라마 5세, 6세의 주도로 일구어진 근대화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재창조하고자 하는가? 그들은 전통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고 과거에 대해 어떤 성찰을 하고자 하는가?

III. 젊은 세대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홀로코스트 과거에 대한 성찰

태국에서 민족주의를 왕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국왕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국왕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상징이다. 라마 9세 국왕은 현 10세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타이 민주주의의 화신이었다. 1973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던 학생들은 라마 9세 국왕의 사진을 앞세우며 운동을 주도했고, 국왕 자신도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을 독려했다(Lertchoosakul, 2012: 57). 또한, 1992년 쿠데타 이후, 검은 5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도 국왕이었다. 쿠데타를 주도한 쑤친다 장군의 총리직 사임과 망명을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왕(탐마라차)”(김홍구, 2013)로서의 라마 9세의 이미지가 정립되었고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타이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옐로우 셔츠와 중산층이 탁신이 아닌 네트워크 왕실을 지지했던 이유도 근대화를 이끌었던 왕실의 상징성도 있지만 동시에 왕실을 앞세워 타락하고 부패한 상류층의 정치인을 타도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Kai, 2012: 1145-1146; Ockey, 2019: 156). 이처럼 국왕은 민주주의를 이끌면서 자비심이 있는 가부장과 같은 이미지이면서도 동시에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인과 혹은 헌법 체계를 초월하는 군왕의 상징을 갖추고 있던 것이다(Hewison and Kitirianglarp, 2010: 189).

그러나 라마 10세는 아버지 라마 9세와는 다르게 즉위 전후로 태국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의복을 입는 것에서도 기행을 보였으며 또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독일에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을 살펴본 Z세대는 왕실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표 2> 세대별 민족, 종교, 군주제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문항	베이비 붐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선택	21.8%	21.9%	13.2%	8.9%
비선택	78.2%	78.1%	86.8%	91.1%

자료: (Jatusripitak and Ricks 2024)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짜뚜씨피탁과 릭스(Jatusripitak and Ricks, 2024)는 연구에서 설문을 통해 “태국 사회에서 여러 화제 중에 이후 정부가 꼭 다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을 응답자에게 물었고, 그 중에 하나를 “민족, 종교, 군주제를 확실히 보호(Ensure protection of the nation, religion, and monarchy)”로 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민족, 종교, 군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라마 6세인 와치라웃 국왕이 재위 당시에 대두되었던 1910년대 초기의 민족주의 때문이었다. 와치라웃 국왕은 왕실에 대한 국민의 충성과 민족주의를 결합하고자 노력했는데, 국왕은 민족의 대표가 되었다. 이때 현재 사용되는 태국의 국기도 제정되었으며, 전면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민족, 종교, 국왕”이었다. 1932년 혁명이 일어나고 이후 왕실의 힘이 약화되었으나, 1947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의 권력이 부활하는 계기가 된다. 이때에도 전면에 세워진 구호 역시 민

족, 종교, 국왕이었다(Baker and Phongpaichit, 2022: 158).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젊은 세대일수록 민족, 종교, 국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Y, Z세대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타이 민족주의가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민족주의를 1932년 시암혁명을 주도한 뿌리디 파놈용, 블랙 피분송크람의 민족주의로부터 찾는다. 뿌리디 파놈용과 블랙 피분송크람은 태국을 주도했던 1930년대의 정치인으로서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카나랏사돈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유학파였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절대 왕정의 입헌군주제 전환을 목표로 했다. 그들에게 민족주의는 따라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민족주의보다는 시민의 민족주의를 지향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청년의 시위에서 뿌리디와 피분송크람이 회자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였다. 피분과 뿌리디를 비롯한 카나랏사돈 세력의 의미는 1932년 혁명과 반왕정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반왕정 정치의 역사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2020년의 청년 운동은 1932년의 기억을 정치적으로 재활성화하고자 하였다(Takahashi, 2023).

그러나 이러한 지점에도 비판적인 성찰은 분명히 있다. 면담에 응한 현재에도 민주주의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익명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카나랏사돈에 대한 비판적 수용]

“우리가 절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했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그닥 진짜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1932년의 카나랏사돈을 아나요? 그들도 독재자예요. 그냥 절대 왕정의 반대파일 뿐이죠. 카나랏사돈이 진짜 민주주의자들이었다고 해도,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왕실주의자들과 같았어요.

[아직도 카나랏사돈의 피분송크람과 뿌리디의 이름이 여전히 시위대에서 회자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들은 왕실주의자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민주적이지 않으면서 왕실에 적대적이었어요. 피분은 왕실에 가깝지 않은 파시스트죠. 뿌리디보다 더요. 그들은 그냥 왕실에 반대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절대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탁신은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그는 인권을 너무 유린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죽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탁신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지 않죠. 태국 사람들은 왕을 아주 많이 숭배하죠.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어려워요. 태국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하니까요.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얻으려면요. 싸워야 해요.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혁명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90년 뒤에 완전한 민주주의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안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이정우, 2025a: 144-146).

그는 면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뿌리디와 피분의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이 왕실을 반대한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피분의 권위주의적 성격이었다. 피분은 군부를 중심으로 집권하였으며 그의 집권 중에도 분명 권위적인 통치를 한 것은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유산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성격을 보임으로서 젊은 활동가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왕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1930년대의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1976년 홀로코스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면담 대상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한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하여 비극적인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동시에 어떤 정치 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상상력을 잇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한 기억 정치의 시작에 선다. 물론, 이것은 1976년을 직접적으로 겪은 베이비붐 세대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그들은 왕실에 대해서 바로 비판을 하지는 않는다.

은둔 대본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들의 비판과는 달리, Y세대와 Z세대는 이러한 교훈을 비판으로 왕실에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다. 이러한 비판은 2020년 기념비적인 시위인 아논 남파(Arnon Nampa)의 해리포터 분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왕실을 언급하기 위해 해리포터 영화에서 “그 누구(you know who)”로 칭해지는 악역의 마법사 볼드모트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권력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러한 학살의 과거를 되새기면서도 동시에 어떤 정치 참여를 지향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청년 면담 대상자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과거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다]

“새로운 세대는 훨씬 더 많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접근할 수 없음’이라는 제한은 있어요. 자아실현의 기회를 막는 장벽, 또는 디지털 플랫폼 접근에 대한 제약 같은 것들이요. 경제적 불평등이죠. 이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젊은이가 어떻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캠페인에 나설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1976년 10월 6일 학살이나 1973년 10월 14일 민주 항쟁에 대해서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역사와 현실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죠. 저는 시위에 참여하면서 그런 걸 비로소 느끼고 배웠어요. (...)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는 이유는 진실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때문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접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서요”(이정우, 2025a: 93-94).

IV. 민족주의, 보수주의 비판으로부터 환대와 연대의 공간 창조까지

이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차이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젊은 세대는 국왕, 민족주의, 보수주의에 비판적이고 태국 사회의 진보를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는 외교정책으로의 선호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언론으로부터 태국의 보수 정당, 특히 현재의 집권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캄보디아와의 분쟁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도구로 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등장하고 있다. 국경 문제는 오래 존재하던 분쟁이지만 군부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이 국가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민간 정부에게 강경 대응을 압박하고 국경 통제 권한을 군이 직접 가져가는 것이다(이슬기, 2025).

캄보디아와의 충돌이 국내 정치의 위기로 전환되는 것은 전 총리인 패팅탄 친나왓 집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부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를 문제 삼으며 분쟁을 본격화했고 패팅탄 당시 총리는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의 집권 당시부터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훈 쉐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 통화를 한 것이다. 이후, 패팅탄 총리가 훈 쉐 캄보디아 상원 의장을 삼촌으로

지칭하며 자국민 태국군 장군을 비난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고 품짜이타이당이 당시 집권 당인 프어타이당과의 연정을 파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태국 헌법재판소로 회부되었고 패탕탄 당시 총리는 파면되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의 스캠을 비롯한 범죄 단지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태국 정부는 한층 위기의 수위를 높였다. 비록 품짜이타이당이 집권 이후, 내각과 심지어 총리 마저도 캄보디아의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태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F-16 전투기를 동원하여 캄보디아 포격에 나섰다. 미국에 의해 잠시 휴전이 되는 듯했지만 태국 정부는 휴전을 파기하면서 캄보디아와 충돌을 지속했다. 젊은 세대는 국제 연대를 도모하면서 보수 정당의 비판에 나섰다. 대표적인 활동이 해시태그인 #NowarThaiCambodia, #สันติสุขชายแดน (#국경에서의평화)가 있다. 국제 연대로는 밀크티 동맹의 계정인 @milkteatha를 통해 <그림 1>과 같은 캠페인을 펼치며 국경 마을에 평화를 가져가기 위한 투표를 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milteatha는 태국의 청년 운동 단체인 @thalugaz 등과 함께 협조하여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공간에 전파되는 담론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5년 7월 24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NowarThaiCambodia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콘텐츠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평화/휴전에 대한 호소,” “국경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었다. 특히 평화를 내세우면서 국경 지대에 거주하다 피신한 민간인들과 캄보디아인에 대한 지지였다. <그림 2>는 최빈도 명사 15개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만든 것이다. 더 자주 다루어진 단어는 크게, 덜 다루어진 단어는 작게 표시되어있다. 전쟁, 평화, 군인, 국경, 캄보디아, 시민, 집/귀가, 폭력, 환경 등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민족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거부와 전쟁에 대한 반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지지와 연대, 캄보디아와의 평화 도모, 환대와 연대의 공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는 2026년 2월 8일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방콕과 수도권 주변 주의 선거구에서 진보 개혁 정당인 뿌라차촌당이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의회 전체로 보면 보수 정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승리하였지만, 방콕과 수도권은 모두 뿌라차촌당이 장악하였다.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 품짜이타이당의 승리는 지역 정치에서 작동하는 금권, 후견주의(clientelism)가 작동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콕에서는 후견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평균 연령 34세라는 젊은 도시라는 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품짜이타이당이 이후에도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방콕의 유권자를 어떻게 만족하게 할 것인가의 숙제를 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후견주의로 당선되는 정당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젊은 세대의 지지는 요원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Y, Z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교해 더 진보적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민족주의와 보수주의를 배격한다. 이러한 특성은 외교 정책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선호가 캄보디아와의 평화 도모, 캄보디아인에 대한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대의 공간은 코호트로서의 Y, Z세대의 활동 영역이 될 것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Y, Z세대의 민족주의에 대한 재평가는 민족, 종교, 국왕으로 대표되는 뿌리 깊은 역사적 전통에 맞서 자신의 활동을 1932년 시암 혁명과 카나랏사돈에 대비하여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림 1> @milkteatha의 투표 캠페인: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milkteatha 외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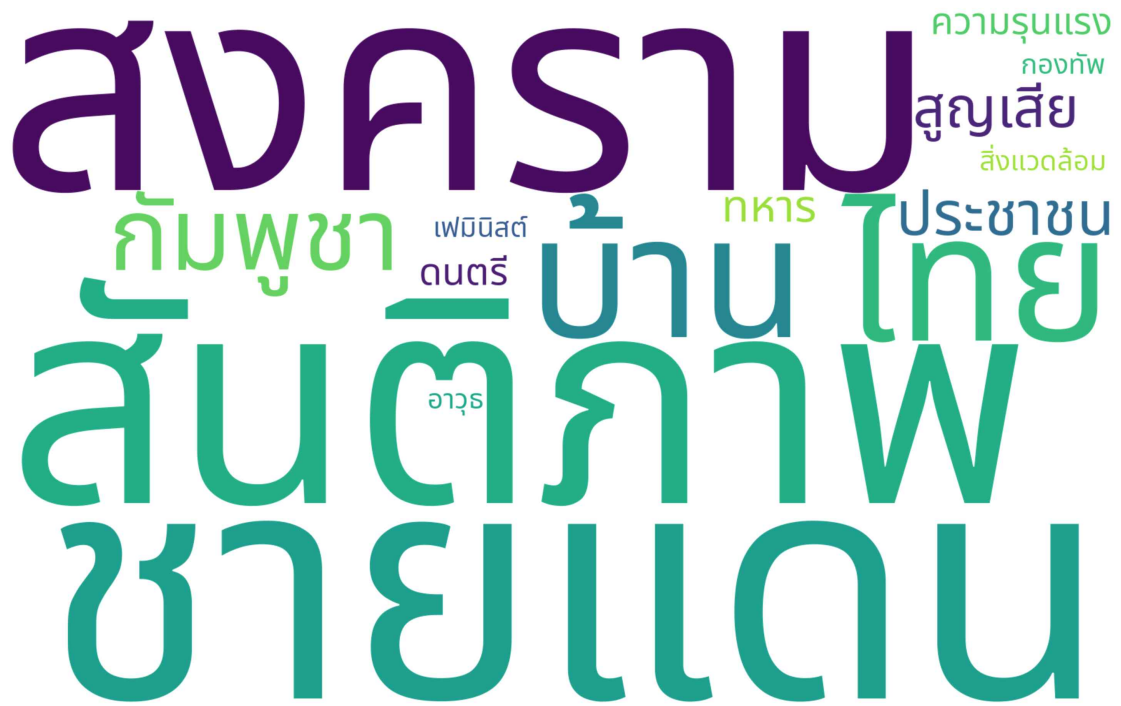
VOTE FOR PEACE

ขอเชิญประชาชนร่วมกัน
เรียกร้องพรรคการเมือง
ให้แสดงจุดยืนสันติภาพ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และ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คืนชีวิตให้ชาวบ้านชายแดน

친구 태그하기...                      

친구 태그하기...                      

<그림 2> 페이스북 포스팅 분석의 워드 클라우드



참고 문헌

- 김홍구. 2013. “태국의 탐마라차와 테와라차 특성 비교: 정치적 정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2(3): 195-236.
- 스몰, 마리오, 제시카 칼라코. 이지원·정택진(역). 2024. 『더 단단한 질적 연구를 위한 안내서』. 서울: 컬처룩.
- 양빈현. 2025. “태국 사람 대답하자 맥주병 가격... 영암서 태국-캄보디아 충돌,” JTBC (12월 11일).
- 이슬기. 2025. “태국 군부와 극우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된 국경분쟁.” 두니아 (12월 26일).
- 이정우. 2025a. 『인터뷰로 만나는 태국 민주주의』. 부산: 산지니.
- 2025b. “태국 까우끌라이당 해산 이후 시위 빈도 감소 요인 분석: 정당 요인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5(2): 129-163.
- Abramson, Paul, and Ronald Inglehart. 1987.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the Future of the Post-Materialist Values.” *Journal of Politics* 49(1): 231-241.
- Andolina, Molly. 2024. “Youth, Generations, and Generational Research.”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9(2): 281-294.
- Baker, Chris, and Pasuk Phongpaichit. 2022. *A History of Thailand (Fourth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elly, Nicholas. 2011. “Counting Thailand’s Coups.” *New Mandala* (Mar 08).
- Inglehart, Ronald. 1971.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4): 991-1017.
- Hewison, Kevin, and Kengkij Kitirianglarp. 2010. “Thai-Style Democracy: The Royalist Struggle for Thailand’s Politics.” in Soren Ivarsson and Lottee Isager (eds.) *Saying the Unsayable: Monarchy and Democracy in Thailand*. Copenhagen: NIAS Press. 179-203.
- Jager, Kai. 2012. “Why did Thailand’s middle class turn against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he information-gap hypothesis.” *Democratization* 19(6): 1138-1165.
- Jatusripitak, Napon, and Jacob Issac Ricks, 2024. “Age and Ideology: The Emergence of New Political Cleavages in Thailand’s 2566 (2023) Election.” *Pacific Affairs* 97(1): 117-136.
- Lertchoosakul, Kanokrat. 2021. “The white ribbon movement: High school students in the 2020 Thai youth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206-218.
- 2016. *The Rise of the Octoberists in Contemporary Thailand*. New Haven: Yale Southeast Asia Studies.

- Quintelier, Ellen. 2007.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young and old people." *Contemporary Politics* 13(2): 165-180.
- Smets, Kaat, and Anja Neundorf. 2014. "Hierarchies of age-period-cohort research: political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al turnout patterns." *Electoral Studies* 33: 41-51.
- Takahashi, Katsuyuki. 2023. "How Phibun Returned to the Political Scene: Youth-led Rallies, Leaflets, and Petitions in 1947, 1948, and 2020."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50(1): 27-50.
- van der Brug, Wouter, and Sylvia Kritzinger. 2025. "Generations and Political Change." *West European Politics* 48(4): 846-856.